

러프 공백 대처하는 삼성 김동엽



김동엽

“장타가 내 최대 무기
최대한 대처해 칠 것”

삼성 라이온즈 김동엽(30)에게 2019시즌은 악몽과도 같았다.

고종욱(SK 와이번스), 이지영(키움 히어로즈)과 3차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 유니폼으로 돌아오며 큰 기대를 받았지만, 1군 60경기에 출장해 타율 0.215(195타수42안타), 6홈런, 25타점에 그쳤다. 2017년(22개)과 2018년(27개) 2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려낸 것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큰 성적이었다. 김동엽이 그 누구보다 절치부심하며 2020시즌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동엽의 강점은 장타력이다. KBO리그 데뷔 첫해인 2016년(당시 SK 스프링캠프 때부터 “비거리 하나는 타고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시즌에는 잠실구장에서 장외홈런을 때려내기도 했다. 지난 3년간(2017~2019시즌) 총 86홈런을 터트린 다린 러프가 떠난 자리를 메울 적임자로 손꼽히는 이유도 그래서다. 김동엽은 이 같은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다.

김동엽은 “러프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게 장타력이다. 솔직히 지난해에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다. 부담을 안고 시즌을 시작해서 한 번에 무너지다 보니 끝까지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만, 최대한 대처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나친 부담감 탓에 밸런스를 잃었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새로운 타격폼에도 서서히 적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 때부터 기존의 노스텝 타격에서 벗어나 레그를 한다. 2018년 초까지 유지했던 레그를 했기에 큰 이질감은 없지만 기존의 습관을 고치느라 다소 애를 먹었다. 다행히 지금은 레그 타격에 적응을 마쳤고, 최근 연습경기에서도 연일 질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김동엽은 “노스텝으로 치면 버릇이 있어서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도 “3~4개월 동안 다리를 들고 치다 보니 노스텝 타격은 있어버렸다. 미야자키 교육리그에서 일본 투수들의 공을 상대하는 게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해보니 타 이미지가 잘 맞더라. 실전에서 장타가 나오다 보니 자신감이 붙었다”고 희망을 노래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25억+130kg...이대호, 몸값도 몸무게도 1위

〈연봉〉

롯데 페이롤 부동 1위...2위는 LG
KIA 양현종 23억원으로 연봉 2위

롯데 자이언츠가 큰 폭으로 선수단 몸값 줄이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리그 페이롤(Payroll·선수 연봉 총액) 1위를 기록했다. KBO는 17일 ‘2020 소속선수 등록 및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페이롤(이하 신인 및 외국인선수 제외)이 100억 원 이상(101억8300만 원)을 기록했던 롯데는 2020년 16.3%를 줄였다. 그러나 역시 리그에서 유일한 90억 원 이상 페이롤을 기록하며 총액 90억 160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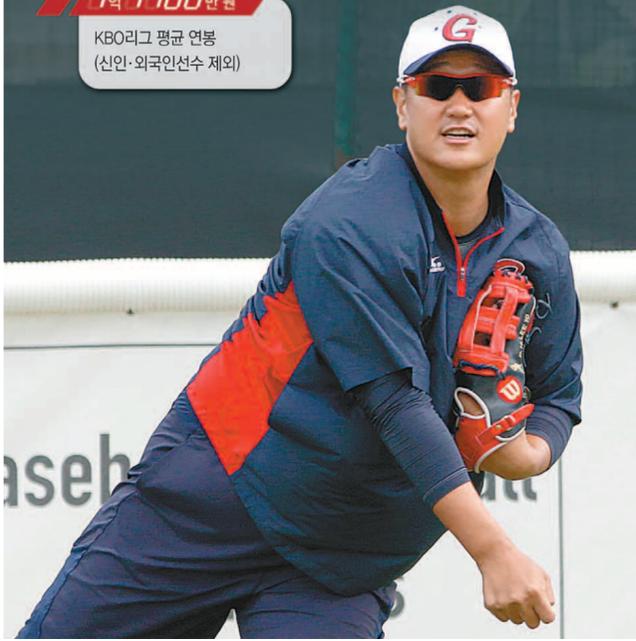
●롯데 리그 유일 페이롤 90억+

2019년 성적 기준으로 상위 5개 팀은 대부분 페이롤이 증가했다. 챔피언 두산 베어스는 4.6%가 인상된 79억1600만 원을 기록했다. 연봉총액 순위는 5위, 평균 연봉(1억6143만 원) 순위는 4위다. 페이롤을 기준으로 두산이 매우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롯데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63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페이롤 1위, 평균 연봉은 2위(1억 6393만 원)를 기록했다.

2019년 최종 순위 3위를 기록한 SK 와이번스는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이적, 베테랑 선수들의 연이은 은퇴 영향으로 연봉이 무려 20.2%나 줄었다. 총액 70억9800만 원으로 리그 7위다. KT 위즈는 페이롤(52억22100만 원), 평균(1억40만 원) 모두 10위다. 창단 후 첫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인상규모는 5.4%에 머물렀다.

NC 다이노스는 56명의 선수가 79억 5900만 원(전체 3위)을 받아 평균 연봉 1위(1억6581만 원)를 기록했다. 4위로는

●숫자로 본 2020 KBO리그 선수



“연봉도 빅 보이!” KBO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이대호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연봉 1위(25억 원)에 올랐다. 여기에 130kg으로 최중량 선수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소속팀 롯데는 최연소 구조조정에 팀 연봉 1위를 유지했다. 스포츠동아DB

위가 뛰어오른 LG 트윈스는 가장 많은 19.7%의 인상을 기록하며 페이롤이 88억 9700만 원(전체 2위)으로 뛰어 올랐다.

●이대호 4년 연속 연봉 킹

4년 총액 150억 원 초대형 계약이 올해로 끝나는 롯데 이대호는 4년 연속 리그 연봉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KIA 타이거즈 양현종으로 연봉은 23억 원이다. 리그 전체 선수는 5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었고 연봉총액은 739억7400만 원으로 4.1% 감소했다.

역대 연봉을 받는 선수는 161명으로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면 리그에 소속된 선수 중 31.4%가 ‘부의 상징’인 역대 연봉을 받는다.

SK 마무리 하재훈은 지난해 2700만 원에서 1억5500만 원으로 연봉이 뛰어 올랐다. 2007년 한화 이글스 류현진이 기록했던 400% 인상 기록을 다시 쓴 역대 최고 인상률(455.6%)이다.

●최장신 198cm·최단신 163cm

리그에 등록된 선수 중 최장신은 한화 신지후로 198cm다. 국내 프로농구에서 파워 포워드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큰 키다. 최단신은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으로 163cm다. 역대 최단신 타이 기록이기도 하다.

최중량은 이대호와 두산 내야수 백민규가 나란히 130kg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최경량은 김지찬(64kg)이다. 리그 최고령 선수는 LG 박용택으로 1월 31일 등록 기준으로 만40세9개월10일이다. 역대 최고령 선수기록은 송진우 한화 코치가 갖고 있는데 만 42세11개월15일에 은퇴했다. 리그 최연소 선수는 KT 신인 이강준(18세1개월17일)으로 박용택과는 22년 차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한화 4·5선발 주인공은 바로 나”

1~3선발 서포드·벨·장시환 밀그림
장민재·김이환 등 남은 두 자리 경쟁

한화 이글스는 미국 애리조나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1차로 피오리아, 2차로 메사에서 ‘봄훈련’을 진행한다. 체력 및 기술 연마에 집중한 피오리아 캠프는 17일(한국 시간)로 종료됐다. 이제 2차 캠프지인 메사로 옮겨 실전 테스트에 돌입한다. 올 시즌 주전으로 활약할 선수들의 면면을 가리는 단계다.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발로테이션 확정이다. 이미 1~3선발은 정해졌다. 지난해 23승을 합작한 외국인 원투펀치 워워 서포드(12승)와 체드 벨(11승), 지난해 11월 2차 2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옮겨온 장시환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자 구성이다. 장시환은 지난해 6승(13패)에 그쳤지만, 시속 150km의 빠른 볼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다. 영입을 위해 적잖은 출혈까지 감수한 사실을 고려하면 선발 자리를 메워줘야 할 귀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한용덕 한화 감독은 스프링캠프 때



장민재

김이환

김민우

나기 전 일찌감치 “장시환은 3선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두 자리를 놓고 ‘낙타 바늘구멍 뚫기’ 같은 경쟁이 불가피하다. 우완 장민재, 김이환, 김민우, 김진영 등의 기존 자원뿐 아니라 2차 드래프트로 입단한 좌완 이현호와 고졸신인 듀오 남지민, 한승주 등이 경쟁한다. 지난해 불펜에서 시작해 선발진에 합류했던 포크볼러 장민재와 후반기 1군

으로 콜업에 가능성을 엿보인 2년차 김이환에게 우선 눈길이 간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아직은 다 고만고만하다. 3월 시범경기까지 마쳐야만 4·5선발 자리의 주인이 확정될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선발로 풀타임을 경험해본 적은 없는 투수들이라 어렵다. 시즌 도중까지도 길게 피리를 드릴 수 있는 불안요소다. 그러나 지난해 스프링캠프와 비교하면 적어도 양측 측면에선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개개인이 다 같이 한 뼘씩 성장해도 선발진을 비롯한 한화 마운드는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초보 코치’ 문규현의 철학 “선수 실패는 코치 탓”

(롯데 2군 코치)

캡스 캠프서 지도자 첫 걸음 준비
“미국 선진야구, 소중한 경험이지요”

아마추어 시절 포함 30여년 가까이 따라붙던 ‘선수’라는 타이틀은 곧바로 지웠다. 코치 초년병이지만 이미 확고한 철학을 세웠다. 선진야구를 피부로 느끼며 신념은 굳건해졌다. ‘초보 코치’ 문규현(37·롯데 자이언츠)의 야구인생 2막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규현 코치는 2002년 롯데에서 데뷔해 지난해까지 18년간 ‘원 팀 맨’으로 활약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1025경기에 출장해 건설한 내야수로 인정받았고, KBO리그 최초로 이를 연속 끝내기를 때려내기도 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은 그에게 성민규 심의 단장이 손을 내밀었

다. 현역 시절부터 베테랑으로서 팀 안팎에 기여했기에 좋은 지도자가 되리라는 판단이었다.

문 코치는 시즌 후 김해 상동구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 지도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2군 수비코치로 보직이 확정됐는데, 현재 롯데의 2군 캠프에서는 문 코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성 단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난 1월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 중인 시카고 컵스의 유망주 캠프에서 연수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락이 닿은 문 코치는 “여기 코치들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이어 기술 훈련 등을 바쁘게 진행하다보면 오후 2~3시경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며 새로운 스케줄을 소개했다. 처음 피부로 느끼는 미국의 선진 야구다. 문 코치는 “훈련 방법, 멘탈 교육, 이미지 트레



롯데 문규현 2군 수비코치(왼쪽)가 1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의 시카고 컵스 교육캠프에서 박현우 부단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 자이언츠

이닝, 식단 교육까지 모든 게 새로웠다. 사람들이 왜 선진야구를 강조하는지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망주 위주의 미니캠프.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코칭하는지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육성 철학을 확립하고 있다. 유망주들을 1군에서 쓸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문 코치는 “이번 연수는

코치 초년병인 내게 큰 경험”이라며 “지금 얻은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체가 즐겁다”며 밝게 웃었다.

2월 말까지 약 한 달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수확은 충분하다. 지도자로서 확고한 철학을 세웠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익한 시간이다. 교육 중 “선수가 실패하면 코치가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선수가 성공하면 그건 선수의 덕이다. 코치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줄 뿐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선수의 공”이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지도자 철학으로 금세 자리 잡았다. 문 코치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았다. 지도자 생활을 하며 이를 잊지 않았다”고 다짐했다.

선수 생활 내내 보여줬던 확고한 철학과 이타적인 태도. 여기에 짧지만 강렬한 충격을 준 메이저리그 연수 경험까지 더해졌다. 이제 막 지도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지만 문 코치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평가를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 최민재 기자 ing17@donga.com